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제2차총회를 맞이하면서

김진균

이사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민주노동운동진영이 날로 거듭 발전해 가고 있음이 경하스러운 일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출범한지 3년째를 맞아 제2차 정기총회를 열게 되었다. 그간 노동운동의 실천단위와 연구단위는 민주노동운동의 진보적인 물줄기를 반드시 흔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87년의 위대한 노동자 대투쟁이 부여한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고자 힘써온 주체들의 피나는 노력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진보로 밀고 가고 있다.

연구소는 보다 객관적이고 역사의 올바른 흐름에 거역하지 않는 자세로 민주노동운동진영에 미래를 밝게 내다보는 지혜와 그 자양분이 될 자료와 지식과 이론을 제공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 왔다. 연구기획을 개발하고, 회보를 발간하며, 연구보고서를 내고, 기획교육을 하고, 현장 평생교육에 나섰고, 연구발표회와 모론회 그리고 해외와의 연구교류를 통해 알찬 걸음을 걷고자 노력하였다. 더 나아가 96년말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날치기 개악될 때, 분연히 그 반역사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치작태를 준엄히 비판하고, 민주노총이 97년초 파업부쟁

연구소는 보다 객관적이고 역사의 올바른 흐름에
거역하지 않는 자세로 민주노동운동진영에 미래를 밝게
내다보는 자예와 그 자양분이 될 자료와 지식과 이론을
제공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는 현장에서 숨쉬고 노동하는 노동자의
현실과 고통과 소망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밀착하고자
했고, 연구라는 이름으로 고립된 성쌓기를 거부해 온 것이다.

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때 모든 진보적 노동연구진영을 동원하여 연대
하고 싸웠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는 현장에서 숨쉬고 노동하는 노동자의 현실
과 고통과 소망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밀착하고자 했고, 연
구라는 이름으로 고립된 성쌓기를 거부해 온 것이다. 한국의 민주노
동운동은 그 주체 자체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지만 그 생동성은 전세
계 노동자들의 혁명적인 힘을 깨닫게 하는 샘줄기 같은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 연구소는 진보적 자세에 기초한 역사
적이고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사업을 통해 한국노동운동의 진취
성을 알리고 그 진보적 전망을 이론화하는 작업에 매진함으로써 세계
굴지의 참신하고 영향력있는 연구소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소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87년 노동자대투쟁
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이 나라 진보적인 노동관계연구소들과 함께
수행하여 '한국노동연구단체협의회'를 출범시킨 이론 진영의 연대를
함께 자라나게 했으며, 서로의 소임을 고귀한 것으로 일깨워 가고 있
다. 민주노동운동진영이 역사를 전진시켜 가듯이 우리 이론진영도 그
렇게 할 것임을 회원 여러분의 자부심을 힘으로 굳게 새겨나갈 것으
로 믿는 것이다.